

무안군의의회, 제4회 추경예산 7072억 확정

추경예산안·조례안 등 총 22개 안건 처리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본회의 통과해

무안군의의회(의장 김대현)는 18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일반안건 2건 등 모두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총 19건의 조례안 중 의원발의의 조례안은 4건으로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 무안군 노

인전문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며 모두 원안 가결됐고 코로나19 무안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중 의원)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로써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65억 6,039만 7천 원



(7.05%)이 증가한 7,072억 6,715만 1천 원이다.

김대현 의장은 “연이은 태풍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등으로 군민들의 시름이 깊다”며,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이 정책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행부 참석인원 최소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무안=이기성기자

신안군, ‘해상풍력 건립 촉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신안군은 주민의 해상풍력 정책 참여 지원을 위해 “신안군 해상풍력 건립 촉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신안군 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주민과 향유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견인하고자, 주민 스스로가 해상풍력 정책 참여를 위해 설명회, 서명 활동, 견학 등의 해상풍력 건립 촉진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써 의미가 크다.

그동안 신안군은 주민과 함께 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비교우위 지역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향유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을 문재인 대통령 이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정을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 전국적으로 확산 시키겠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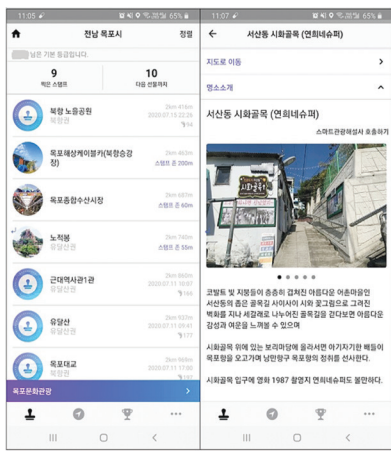
특히, 해상풍력은 낮은 수심과 질 좋은 풍황의 최고 입지조건으로 단일 구역으로는 세계 최대규모인 8.2GW가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는 전남도, 신안군, 신안군수협, 새어민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주민수용성 확보로 해상풍력 발전소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해상풍력 촉진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외부이익단체 개입의 효과적인 대처 등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동취재본부

목포시, 스마트 관광 어플리케이션 ‘스탬프 투어’ 소개

주요관광지 25개소 방문…스탬프 획득 앱



목포시는 스마트 관광시대를 맞아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여행을 둘러볼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 관광 어플리케이션 ‘스탬프 투어’를 소개했다.

‘스탬프 투어’는 춤추는 바다분수, 목포해상케이블카, 목포근대역사1·2관, 시화골목, 스카이워크 등 목포를 대표하는 주요관광지 25개소를 방문하면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는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스탬프 획득 방법은 ①‘스탬프투어’를 핸드폰에 설치하고 → ②관광지를 방문해서 ‘스탬프투어’를 실행한 후 → ③‘스탬프투어’앱에서 제공하는 스탬프를 받으면 된다.

스탬프투어의 강점은 종이로 제작된 관광안내책자를 소지하지 않고도 핸드폰을 통해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검색할 수 있고, 스마트관광 해설사로부터 직접 해설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는 스탬프투어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스탬프투어 관광객들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앱 이용자는 관광지 24개소를 방문하여 스탬프를 획득하면 3만원, 17개소 방문 시 2만원, 10개소 방문 시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목포시민의 경우에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스탬프투어를 운영하며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주요 관광지 곳곳에 방역요원을 배치하고 비대면 여행 콘텐츠를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기자

영광군,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영광군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군·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오는 29일까지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 판매업을 하는 대형마트, 정육점 등이며, 국내산 및 수입산 소·돼지고기, 국내산 닭·오리고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판매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여부,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및 이력관리시스템 기록 관리 등 영업자의 이행사항을 함께 점검한다.

현장 단속 결과, 소·돼지고기의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것이다.

또한 닭·오리·계란 이력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제도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영암군, 영암호 불법 어구 철거

50여명과 어선·중장비 동원…삼각망·페그몰 85틀 수거

영암군은 지난 18일까지 영암호 내 수면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에 대하여 일제 철거 작업을 진행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수질 오염 예방에 나섰다.

지난해 신규 내수면 허가가 난 영암호가 붕어, 잉어, 메기, 장어 등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불법어로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어장관리를 위해 철거 작업을 시행했다.

군은 영암자율관리어업공동체(대표 김대성) 회원 50여명과 어선 및 중장

비를 동원하여 삼각망 및 페그몰 85틀을 수거했다. 이번 철거 작업 시행 전 사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진철거토록 계고기간을 두고 홍보와 독려에 나섰으며 기한 내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어구들을 모두 철거했다.

군은 지난해에도 영산강과 영암호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 211틀을 제거하여 내수면 수질 개선과 수산자원 보호에 일조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행위를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군, 친환경농산물 날개 달았다

관련 사업 2개 선정

함평군 친환경농산물이 관련 사업의 일단 선정으로 호재를 맞았다. 함평군은 18일 ‘2021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과 ‘2021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에 동시 선정돼 총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총 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

축사업은 지역 전지영농조합법인인 맡아서 추진한다.

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단호박, 양파, 양배추, 쑥, 견고추 등을 생산하는 전지영농조합법인인 아이쿱(icoop), 학사농장 등에 납품하며 약 20억 원의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상품 선별장, 저온저장시설 등이 구축되면 생산품 다양화는 물론 대형마트·학교급식 등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에

도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비 5억 원이 투입되는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에는 대동면 강운마을이 선정됐다.

강운마을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마을공동체를 이뤄 현재 친환경 벼, 보리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군은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를 통해 마을 내 저온저장시설, 소포장 라

인 등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잡곡 선별라인 포장시설을 신설해 수도작 이외 밀, 보리, 참깨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동시에 주민 자체 브랜드도 개발해 우리생협, 학사농장 등과 공급계약 체결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가공·유통기반이 확충되면서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